

#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윤 영 대(Yung-Dai Yoon)\*\*

### 〈목 차〉

I. 서론	1. 북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중국
2. 연구의 방법	3. 일본
II. 이론적 배경	4. 한국
1. 의학사서의 정의	IV. 의학사서 교육 모델의 고안
2. 선행 연구 개관	V. 결론
III. 각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	

### 초 록

북미,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문헌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가능한 의학사서를 위한 교육 모델을 고안하였다.

교육모델은 의학사서의 정규양성과정,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과 의학사서 자격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주제어: 의학도서관, 의학사서, 주제전문사서, 계속 교육, 자격제도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four approaches to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 those of North Americ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Korea and the various opinions in the previous studies of the education for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and it suggests the educational system for medical librarianship practicable in Korea, including formal degree programs, continuing education and medical librarian certificate program.

Key Words: medical library, medical librarian,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continuing education, certification program

\* 이 논문은 2002년도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에 의함.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dyoon@pine.smu.ac.kr)

• 접수일 : 2003. 2. 10 • 최초심사일 : 2003. 2. 22 • 최종심사일 : 2003. 2. 24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제별 도서관 중에서도 의학도서관과 법률도서관의 정보 봉사는 주제 전문사서의 봉사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절실히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의학도서관 과목과 법률도서관 과목을 주제에 따라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

의학 정보는 어느 타 전공 분야보다도 그 범위가 크며 또한 정보량도 가장 크고 의학의 발달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더욱이 의학 정보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일반 상식으로 의학정보를 취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의학 뿐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서도 주제전문 사서의 필요성은 도서관의 시작과 함께 인식되어 왔다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도서관에는 학자들이 도서를 관리하며 목록을 하여왔으며 이는 Scholar - Librarianship으로 표현되며 아직까지도 유럽의 도서관학은 그 경향이 남아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학도서관에는 의사가 사서로 근무하였고 초기의 공공도서관에도 의사사서가 많이 있었다.

그 후 대학에 사서 양성과정인 설치되면서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확립되어 왔으나, 도서관학을 교육받고 양성된 사서들은 주제적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정보 봉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는 학부에서 주제 전공 배경을 획득하고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을 이수하는 제도에서도 주제 배경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국내의 경우와 같이 학부에서 문헌정보학만을 이수하는 교육 제도에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의학도서관에서는 주제 전문 사서의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의학도서관, 의학서지 및 의학 용어학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타 대학으로의 확산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의학도서관의 한 두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것에 비하면 상명대학교의 경우가 빈약한 것은 아니나 완벽한 의학 사서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의학사서 양성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여 국내에서도 의학 도서관학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의 방법

북미,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를 문헌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주제 전문 사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방법등을 종합하여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의학사

서 교육제도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모형 안의 내용은 의학사서의 양성,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 및 의학사서 자격 제도를 포함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학사서의 정의

의학사서를 의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의학도서관 사서라는 뜻이 될 것이고, 주제전문사서의 개념에서 본다면 의학 주제 지식을 가진 사서라는 뜻이 될 것이다. 영미에서 주제 지식이 풍부한 도서관원을 종래의 도서관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자 한 것은 1960년의 일이다.

이와 같은 도서관원은 Subject Specialist, (subject) Bibliographer, Reference Bibliographer, Professional Specialist 등의 몇 개의 이름으로 불리어져 왔다.<sup>1)</sup>

여기에서 Subject Specialist(Librarian)라는 명칭은 주제전문가 또는 주제전문사서라는 뜻으로 의학사서는 의학주제전문가(의학주제전문사서)라는 명칭이 성립되며 주제 전문이란 특정주제 지식을 뜻하는 것이니 의학사서는 의학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서를 뜻하거나 의학 주제 지식은 없어도 의학 정보자료원에 통달한 사서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지가는 정보의 소재를 잘 알아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소임은 끝나는 것이나 이는 참고봉사에 있어 Rothstein<sup>2)</sup>의 최소이론, 중간이론, 최대이론 등 3단계의 구분 중 최소이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서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도서관 정보봉사에 최대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막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요구자에 꼭 맞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주제 전문 사서가 되어야 하고 정보원에 통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이 논문에서는 의학 사서를 의학 주제전문사서와 의학서지가의 개념이 합쳐진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의학사서의 교육은 의학 주제에 대한 교육과 의학서지가로의 교육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의학사서라는 명칭은 Medical Librarian과 Health Science Librarian(보건과학사서)이란 명칭을 혼용하나 최근에는 후자를 자주 사용한다. 의학도서관을 Medical Library 보다는 Biomedical Library나 Health Science Library라 자주 표현한다.

1) 박종근 역,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주제전문사서," 국회도서관보, 139(1979).

2) Samuel. Rothstein, "Reference Service : The Demension in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2(1961), pp.11-18.

이는 의학 도서관의 범주가 보건과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의학 연구에 응용되는 주변 과학 분야가 계속 증가하면서 의학 도서관장서도 생명과학 또는 보건과학 분야로 주체의 폭이 커지면서 명칭도 변화해온 것이다.

## 2. 선행 연구 개관

Groen과 Xiong<sup>3)</sup>은 북미와 중국의 의학사서교육을 비교 도서관학적으로 비교하였다. 중국은 의과 대학교에 의학 도서관학 대학을 설치하고 3년은 의사양성과정과 똑같이 의학을 이수하고 나머지 2년 동안 의학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의학사서가 되며 북미에서는 도서관 및 정보학 대학원에서 의학 사서직에 관한 한 두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양성 교육보다는 계속 교육에 치중하는 제도라 하였고, Integrated Academ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LAIMS)을 운영하면서 의학도서관의 정보 기술과 실무에 필요한 기술이 변화하였고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cs), 의학분야의 인공지능, 의학의 계속 교육 등의 새로운 분야의 등장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은 도서관 및 정보학 대학원에서 교육되지 않으며 그러한 분야를 담당하기 위하여 컴퓨터, 의학, 지능과학 분야의 타 전공자들이 도서관에서 사서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계속 교육을 중요시한다. 북미에서는 5년마다 계속교육을 받고 자격을 갱신하는 보건과학 사서자격 인증제를 실시한다. 의학주제전문가의 양성제도로는 중국의 제도가 좋겠지만 의학을 같이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의학사서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급여의 차이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결론에서 중국의 의학사서는 북미의 교육을 받은 사서가 하지 못할 주제 전문가로 발전할 것이고 북미에서는 제도적 계속교육의 부족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 전환기에 있다 하였다.

Smith<sup>4)</sup>는 북미의 보건과학 사서의 교육제도를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후 프로그램(post-master's program) 즉 Internship과 계속교육 및 계속교육의 실효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학사서의 자격 인증제 등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의학 도서관 협회(MLA)의 활동 등을 종합하였다.

Groen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인증제는 5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하고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학사서 교육에 있어 의학 도서관 협회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그의 활동으로 계속 교육은 물론 도서관 및 정보학 대학원에 의학 도서관 과목을 개설하여 확장 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고 국립 의학 도서관(NLM)도 역시 의학사서의 전문직적 발전과 교

3) Frances Groen, Dighi Xiong,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 A comparative Review of Education for a Profess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5(Winter 1994), pp.40-48.

4) Linda C. Smith, "Education for Health Sciences Librarianship".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Vol.17, No 2(1998), pp.59-80.

육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턴과정 등을 통한 의학사서교육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하였다.

Detlefsen의 말을 인용하여 보건정보의 특화된 LIS과정이 성공할 수 있는 인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① 보건정보에 공인된 관심을 가진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LIS 과정에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임종신제 교수 ② 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고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의학 또는 보건과학의 프로그램 ③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근처에 대규모 대학 보건과학센터의 의학도서관 ④ LIS과정을 갖고 있는 대학교의 의료정보학과 훈련프로그램.

한경신<sup>5)</sup>은 의학주제전문사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본과 미국의 의학사서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발달과정과 현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의학주제전문사서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의학주제전문사서의 명칭과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 둘째, 법적 근거에 따른 의학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 확립, 셋째, 의학도서관의 사서채용 시 자격을 갖춘 사서의 채용 및 대우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넷째 문헌정보학과에서의 의학도서관 관계 과목 설치 및 교수 확보, 다섯째, 의학도서관의 육성과 의학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재정적인 지원, 여섯째, 의학 사서를 위한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계속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 법률전문사서와 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의학에 한정된 연구는 아니나 주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에서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

강미혜<sup>6)</sup>는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주제전문사서와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의 3군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고 그 결과 ① 주제전문사서직을 위한 교육은 학과제보다 학부제가 용이하고 ② 전공최소이수학점은 학부제에서 30-36학점인 반면 학과제에서는 37학점이상으로 나타났다. ③ 사서직이 가장 필요로하는 일반 전공지식은 컴퓨터와 영어였고 ④ 학생들은 기술과목을 중시하는 반면 현장사서는 이론과목을 중시하였다. 여기에서 주제전문사서라는 명칭은 독립된 주제에 대한 특수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명자<sup>7)</sup>는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법률사서직 교육이 앞서 있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역사적 발달 과정과 교육 방법 및 내용을 고찰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 전공과정을 설치하는 것이라 제안하였다.

강미혜<sup>8)</sup>도 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 서지

5) 한경신, “의학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논문집, 22집(1992), pp.117-146.

6)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 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 주제전문사서, 학과제학생, 학부제학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3, No.1(1999), pp.129-143.

7) 홍명자,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2, No.3(2001), pp.249-274.

8) 강미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과제방안 연구 : 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6, No.3(2002), pp.49-68.

과목 과제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주제전문사서의 양성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학부제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주장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교육이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가장 접근이 가능한 방법으로 주제서지과목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률서지과목의 과제를 통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담당교수의 지도로 법률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과 대학원 과정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구자영<sup>9)</sup>은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란 논문에서 주제전문사서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사서직 교과과정에 주제전문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 교과과정 중에서 특수 도서관 연구와 계열별 문헌연구 분야들과 같이 주제전문 정보봉사를 주축으로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으며 그 방안으로서 ① 주제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최대한으로 권장 실시한다.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화 연구를 강화시킨다. ③ 계속교육제도를 통하여 기성사서들을 유능한 주제전문사서로 성장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Ⅲ. 각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

#### 1. 북미의 교육제도

##### 1) 석사학위과정

미국에서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의학도서관 과목은 1923년에 Minnesota 대학에서 생물학과 사회봉사를 강조하는 학부 3년 교육 이후 1년간의 일반 도서관 교육과 5년차에 병원도서관 봉사의 이론과 실재를 이수하는 연구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몇 년간 지원자가 없어 실패하고<sup>10)</sup> 실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39년에 Columbia School of Library Service에서 Bibliographic and reference service in the Medical Service를 개설한 것이 최초이며 Thomas Fleming 교수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후 1946년에 Estelle Brodman 교수가 맡아서 의학도서관 운영, 의학도서의 목록과 분류, 의학도서수서 등이 강조되었다.<sup>11)</sup>

1923년에 Carnegie 재단의 의뢰에 의하여 도서관 교육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위 Williamson Report인 Training for Library Service에서 도서관 교육은 대학원의 학위과

9) 구자영,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학, 6집(1979), pp.37-51.

10) Janet Do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37(1949), p. 216.

11) Fred W. Roper, “Library School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67, No.4(1978), pp.359-364.

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 현재는 북미에서 도서관 교육은 모두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었고 학위과정 중에 의학 도서관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 Roper<sup>12)</sup>에 의하면 1977년에 도서관 협회의 공인을 받은 64개 도서관 학교 중 47개 대학에 70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다.

1963년에 Estelle Brodman<sup>13)</sup>이 의학도서관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 보건과학의 전체적인 면에서의 의학 사서직의 위치
- 2) 표준적 도서관 기술의 핵심에 대한 지식
- 3) 새로운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개념들
- 4) 전문성의 형성
- 5) 연구방법론

또한 1967년에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Alan M. Rees<sup>14)</sup>는 의학사서의 교육과정 계획에 필요한 영역의 모형을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 영역 1. 사서직의 기본적 원칙과 기술
- 영역 2. 의학도서관 자원, 설비, 기능 및 기술의 구조, 조직과 관리
- 영역 3. 생의학 주제내용(의학용어학 포함)
- 영역 4. 의료, 의학 교육 및 의학 연구의 환경 및 형태

LIS(도서관 및 정보학) 대학원에서 보건과학 사서직의 발전은 MLA의 노력에 힘입어 왔으며 오랫동안 MLA의 자격프로그램에 의한 의학사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수해야 할 선택된 과목을 인가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도서관 학교에서 의학사서직과 의학 서지학의 특수과정을 확립하는데 추진력을 주었다.

1974년에 의학사서 자격 프로그램이 개정되어 종신 자격제가 폐지되고 5년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갱신하도록 되었고 MLA가 도서관학교에 과목을 승인하던 관계가 종식되었으나 의학사서 지망생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건과학 사서직 과목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의 목록을 유지한다.<sup>15)</sup>

많은 대학원들이 문헌과 경영을 합한 1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를 분리하여 2과목을 개설한다. 2과목 이상을 개설하는 대학은 몇 개처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과목을 담당할 교수 요원이 부족하여 대개 의학도서관 실무자들이 강의를 담당한다.<sup>16)</sup>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학부과정의 전공이 생물학이나 약학과 같은 보건과학이나 유

12) Fred W. Roper, *op. cit.*

13) Estelle Brodman, "Inter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Degree programs and postdegree Internship Training",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56(1968), pp.368-379.

14) Barbare Hill,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60, No.1(1972), pp.121-132.

15) Smith, *op. cit.*

16) *Ibid.*

사 전문분야 출신이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의학 도서관 과목 이수를 지망하는 학생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더욱이 그 과목이 1,2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제도가 보기 어렵다.

## 2) 학위 후 과정(인턴십)

1923년의 Williamson Report는 도서관학교에서 교육한 이론적인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인턴십의 훈련기간을 제안하였다.<sup>17)</sup> 당시의 도서관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쳤다고 비판되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도 그러한 경향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인턴십이다.

인턴십은 1942년에 Tulane대학의 Rudolph Matas Orleans Parish Medical Society Library에 개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후에 MLA 회장이 된 Mary Louise Marshall이었으며 자격 요건은 학부를 졸업하고 도서관 학교를 졸업하고 이 분야에 적합성이 있는 자로 하였다.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협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게 운영하였다. 1946년 Marshall이 MLA총회 시 회장 연설에서 이 과정을 Residency라 소개한 이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sup>18)</sup> 1944년에는 Vanderbilt 대학의 의학도서관에 Eileen Cunningham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다.<sup>19)</sup> 그 다음은 Associateship이란 명칭으로 1957년에 국립의학도서관(NLM)에 설치되었고 1961년에는 NLM Regional Medical Library Program의 지역대표 도서관인 Emory대학(Artlanta, Geoigia)의 A. W. Calhoun 의학도서관과 California대(Los Angeles) 의학도서관에 각각 설치되었다. 이후에 많은 인턴십이 설치되었는데 이들은 Medical Lbrary Assistance Act에 의한 국고금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 되었으나 1974년에 와서는 NLM의 것만이 남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서 거의 포기되었다.<sup>20)</sup>

Darling<sup>21)</sup>은 인턴십의 이점으로 특정 실무지식의 습득은 물론 의학사서직의 철학, 업무에 대한 자신감, 봉사에 대한 헌신, 전문직적 태도, 전문직 윤리에 대한 감각, 실제 상황의 견지에서 문제를 통한 사교력의 개발 등을 들었다.

17) Julie A. Virgo, "Education of Medical Librarian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New York : Marcel Dekker, 1975), pp.372-373.

18) Mary Louise Marshall, "Training or Medical Librarianship,"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34(1942), pp.249-265.

19) Louise Derling,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in American Medical Librarians,"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51(1963), pp.339-353.

20) Smith, *op. cit.*

21) Darling, *op. cit.*



### 3) 계속 교육

다음에 소개할 중국의 경우에는 양성과정에서 의학을 3년간 이수한 후 의학 도서관학을 공부하여 주제 전문사서를 양성하는데 비하여 양성과정은 1,2 과목의 의학도서관 과목으로 의학사서를 양성하는 미국의 제도에서 계속 교육은 보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정규적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었다.

미국에서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MLA에 의하여 제공되는 과정들이다. MLA는 매년 년차 총회 시에 1,2일간의 계속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이는 1958년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총회와 지역 총회에 다양한 계속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1990년대 중반에 제공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 보건과학 환경과 정보정책 - 보건관리 환경과 생의학 정보
- \* 정보서비스의 관리 - 기본적인 도서관 경영, 병원도서관 경영의 원칙, 보건과학사서의 예산 관리 입문, 도서관 시설의 계획, 참고봉사관리, 재정수급, 제안서 작성에 대한 숙련의 개발
- \* 보건과학 정보서비스 - 보건 전문직의 정보요구, 의학 용어의 이해와 이용법, 탐색을 위한 Mesh, 필수 데이터베이스의 탐색, 보건 과학분야의 참고정보원에 대한 소개, 정부 정보소스, 간호정보접근, 노인학과 노인병학 정보자원, 치과학의 정보자원, AIDS의 개념과 자원, 종양학 개념과 자원, 약품과 약학정보, 독물학 정보
- \* 정보과학 자원관리 - 보건과학 도서관 장서의 개발과 평가, Mesh와 NLM분류표, 기술목록
- \* 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 - 마이크로 컴퓨터의 소개와 플로피 디스크 관리
- \* 교육 지원 시스템 - 서지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리
- \* 연구, 분석과 해석 - 사서의 연구계획서 개발, 보건과학 사서의 연구방법론, 출판을 위한 논문 작성 등이다.

의학사서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MLA 다음으로 NLM에서 많이 제공된다. MEDLARS, MEDLINE, GratefulMed(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PubMed 등의 검색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NLM이 제공하는 계속 교육과정 중 특기할 것은 1992년 이래 매년 한번씩 Massachusetts의 Wood Hole에 있는 Marine Biological Laboratory에서 강의와 실험을 통하여 일주간의 과정으로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cs)에 대한 Survey를 개최한다. 의료 정보학은 새로 대두된 분야로서 이 교육에는 임상의학자와 기초과학자와 사서들이 10명씩 참가하여 30명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원칙, 의학 어휘와 기호화 시스템, 인터넷, 문헌탐색, 분자 생물학 정보자원 암호화와 임상정보시스템, 원격의료(Telemedicine)등으로 구성된다.<sup>22)</sup>

이 과정은 1991년에 MLA가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Society와 공동으로 의료

정보학 과정을 개설<sup>23)</sup>한 이후 NLM에 의하여 매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속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여 자격증을 갱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동기 부여에 자격증 제도가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4) 자격증 제도

미국에서 의학사서자격증 제도는 1946년 총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1948년에 그 규정이 채택되고 1954년과 1964년에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규정에서 자격등급은 Grade I -III까지 규정하고 도서관학교에서 MLA가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이들 과목에 포함된 자료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인턴쉽을 이수하면 Grade I 이 되고 GI의 자격위에 도서관학에 응용될 수 있는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도서관의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MLA가 지정한 도서관에서 인턴쉽을 이수한자가 GradeII가 되고, GIII는 도서관학에 응용될 수 있는 박사학위를 받고 공인될 수 있는 의학도서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된다.<sup>24)</sup>

이 제도는 1974년에 개정되어 종신제 자격증제도는 종식되고 MLA가 인가한 과정에서 계속 교육의 여러 단위를 이수하거나 5년 이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재교부하도록 하였다. 5년마다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것은 사서들이 그들의 최신지식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 후 1989년에는 자격시험으로부터 증빙서류 심사체계로 변경하였다.

MLA는 Academy of Health Information professionals를 개발하였다. 도서관 및 정보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도서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회원신청을 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4개의 수준으로 구분된다(Distinguished, Senior, Member, associate : 특별, 원로, 정회원, 준회원). 이는 미국 의학도서관협회, 캐나다 보건도서관협회 및 미국 특수도서관협회에서 전문적 저술과 봉사에 대한 공헌도에 기초한다.

재교부를 위해서는 교육적, 전문적 발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문적 성취와 계속 교육의 이수 실적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대학의 과정과 계속 교육활동이 포함되고 개인적 성취는 계속 교육과정 개발, 교육, 출판,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매체준비, 강연과 연설, 전시, 전문협회 활동, 학술회의 참가 그리고 기금제공 등이 포함된다.<sup>25)</sup>

## 2. 중국의 교육제도

중국의 도서관 교육은 미국과 달리 4년제 학부와 2,3년의 사서양성과정<sup>26)</sup>이 있다. 1984년

22) Smith, *op. cit.*

23) Dighi Xiong, *op. cit.*

24) MLA, *Handbook of Medical Library Practice*, 3rd ed. 1973.

25) Smith, *op. cit.*

당시 대학에 9개의 과정이 있었고 양성과정 외에 北京대학과 武漢대학에 9개의 과정이 개설되고 도서관 전문 야간 대학이 있었다. 白求恩醫科大學에서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 전문대학 졸업생 중 18명을 선발하여 1년반 동안 의학을 교육하고 그후 도서관학을 교육하는 과정이 설치되었고 그 과정의 내용은 1) 의학의 기초(기초의학과 임상의학) 600시간, 2) 도서관학 500시간, 3)외국어 700시간(주로 영어이고 140시간의 일어와 50시간의 러시아어)으로 편성되었고 졸업 후 吉林省의 의학도서관에 배치하였고 1982년에는 이 과정의 성과가 좋아 沈陽市の 中國醫科大學 도서관에도 유사한 과정이 개설되었다.<sup>26)</sup> 이때 까지도 중국의 광대한 국토와 국민수로 볼 때 도서관 교육제도는 빈약하기 짝이 없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그리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1986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에서 미래의 인력요구에 대비하여 의학사서의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수한 실무 의학 사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의학사서의 교육에 적합한 4개의 의과 대학을 선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의과대학의 감독청인 공중보건성의 인가를 받았다. 선택된 대학은 Med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China Medical University, Shenyang과 Tong ji Medical University Library School, Wuhan과 Bethune Medical University Library School, Chanchun과 Human Medical University Library School, Chansha 등이며 교육과정은 4년으로 시작하여 이듬해 1987년에는 의과대학과 같이 5년제로 개편되어 전반 3년 동안은 의과 대학생과 같이 의학을 이수하고 후반 2년을 의학전공자는 임상의학, 의학사서전공자는 의학도서관을 이수한다. 이 기간에 제공되는 교과과정 내용은 장서개발, 의학정보검색, 분류, 마이크로 컴퓨터 응용, 기술, 도서관 경영은 물론 의학논문작성, 편집, 통계, 연구방법론 등이 포함된다. 5년 과정에서 의학수업이 2500시간, 의학 도서관 및 정보학 수업에 1,150시간이 이수된다. 중국의 의과 대학 수는 136개교에 의학 도서관 대학은 전기한 4개 교에 불과하다.<sup>27)</sup>

주제전공 수업이 본적인 도서관·정보학 수업시간보다 2배가 넘는다. 이는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방법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제도라 하겠다. 그리고 中國醫科大學에서 의학도서관학 학장이 의과대학교의 도서관장을 겸임함으로써 하나의 관리체제하에서 이론과 실체가 통합된 교육이 가능하게 한 것은 더욱 훌륭한 교육제도라 할 수 있다.<sup>28)</sup>

Groen<sup>29)</sup>등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Regional Medical Library가 있어 이들 6개의 지역 대표 의학도서관들이 곧 의학사서를 위한 계속 교육에 관계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북미에서는 의학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하여 계속 교육에 치중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양성과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겠다.

26) 한경신, "의학주제전문사서의 교육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22집, p.199에서 재인용.

27) Groen and Xiong, *op. cit.*

28) *Ibid.*

29) *Ibid.*

### 3. 일본의 교육제도

일본에서 의학사서의 전문적 교육은 1962-1964년에 걸쳐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미국의 의학도서관의 권위자인 Estelle Brodman 교수가 1962년에, 1963년에는 Thomas Fleming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慶應大學에서 전국의 생 의학 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매년 3개월씩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정규과정에 의학 도서관 과목이 개설된 것은 1981년에 慶應大學 문학부 도서관·정보학과에서 도서관·정보학 특수 X·Y의 2개 강좌를 개설한 것이다. 이 과정은 도서관·정보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하였으나 현직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의 기회로 1년간의 과정으로 개방하였다.

도서관·정보학 특수 X는 주로 의학 정보자료의 유통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것이고 특수 Y는 의학, 의료정보의 유통과 환경의 문제를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학 사서의 계속 교육은 의학도서관 협회가 1956년부터 일본 약학 도서관 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3-5월에 걸쳐 강습회를 개최하여오다가 1966년부터는 각각 분리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강습회에서는 의학용어, 자료해제, 의학도서관의 관리·운영상의 제문제, 문헌탐색, 컴퓨터의 응용, MEDLARS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sup>30)</sup>

### 4.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에서 의학도서관에 관한 정규 교육은 1982년부터 상명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의학용어학과 의학도서관 운영론을 개설하고 자연과학 서지에서 의학 서지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자연과학 서지에서 의학서지를 분리하여 3과목을 개설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학부제가 되면서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의학서지를 자연과학 서지와 다시 병합하여 의학 및 과학 정보원이 되었다. 생 의학 도서관에서는 의학정보원 뿐 아니라 자연과학분야의 모든 정보원이 이용되기 때문에 다시 병합한 것은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어쨌던 이 분야의 교육 내용은 변함이 없었다. 의학용어학에서는 간단한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정상적인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시키고 병명은 의학적 이론을 가미하여 의학용어를 익히도록 한다. 의학도서관 운영론에서는 MLA의 Handbook of Medical Library Practice를 주교재로 하여 의학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의학도서관분류표, 참고·서지봉사, 기타 열람봉사를 교육하며 의학 및 과학 정보원에서는 역시 의학 쪽을 중심으로 의학 참고자료와 서지탐색과 MEDLARS, MEDLINE 데이터베이스와 PubMed검색 등을 교육한다. 이 과목은 필자가 개설하여 20년간 강의해오고 있다.

30) 津田良成, “慶應醫塾大學 圖書館學科の醫學圖書館 關係 講座 開設, 1年目について,” 醫學圖書館, Vol.29, No.2(1982), pp.113-121.

자화자찬 같지만 미국에서도 대개 1,2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데 비하면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3과목을 교육하는 것은 이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은 1968년에 창설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의학사서를 위한 강습회와 매년 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와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그러나 아직은 정규적인 프로그램은 별로 없고 다만 의학용어학 강습회는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

#### IV. 의학사서 교육 모델의 고안

앞에서 4개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모델을 모방한 시도가 있을 뿐이며 그나마도 1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 교육도 빈약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부과정에서 주제 전공을 이수한 후 대학원 과정에서 도서관 교육이 이루어지는 점이 매우 훌륭한 제도이나 주제전문 사서를 양성하기에는 완전하다 할 수 없겠다. 의학사서 지망자는 학부에서 생물학이나 약학, 간호학 및 보건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 바람직하다 하나 지망자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의과 대학교 내에 의학도서관 교육기관을 두어 3년간은 의사 양성과정과 똑같이 의학을 공부하고 나머지 2년은 의학 도서관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는 주제 전문사서의 양성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며 특히 의학도서관 교육 책임자가 그 의과대학교의 의학 도서관장을 겸임하여 하나의 관리체계 하에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의사와 의학사서간의 직업적인 계층 구조가 없고 급여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도저히 응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겠으나 미국에서는 사서교육이 대학원 과정에서 실시되고 한국은 학부에서 실시하는 차이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자들의 제안과 4개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장점을 종합하여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그 골격은

첫째, 학부과정의 도서관 교육을 대학원 과정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현재로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학부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가능한 한 많은 의학 도서관 과목을 개설하고 가능한 한 학부과정 중 의학주제 배경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서를 배출한다.

둘째,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자원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교육제도 하에서도 필수적인 계속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의학 도서관 과목 개설을 확대시키고 계속 교육에 대한 동기를 주기 위하여 의학 사서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사서 양성과정

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의학도서관 과목 개설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의학도서관 경영론, 의학정보자원론, 의학정보검색론, 의학장서개발론 등

나. 의학주제 배경을 위하여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는 선택과목으로 의학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학 도서관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면 미국과 중국의 좋은 점을 딴 제도가 될 것이다.

수강을 권할 수 있는 과목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다. 의학도서관 전공교수가 그 대학 의학도서관 관장을 겸할 수 있다면 중국의 China Medical University의 경우와 같이 이론과 실제를 병합한 교육이 될 것이다.

둘째, 의학사서를 위한 계속 교육

미국에서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도서관 및 정보대학원과 국립의학도서관과 의학도서관 협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나마도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앞으로도 미국과 같이 예산도 크고 강력하게 전국의 의학도서관 발전을 선도해 줄 국립의학도서관이 없으니 의학도서관협의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서자격제를 채택하고 그 자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한다면 의학사서들의 계속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될 것이고 수요자가 있으면 공급자도 생기기 마련이다. 일본 게이오 대학의 도서관·정보학 특수 X·Y와 같이 문헌정보학과와의 협력을 얻어 재학생과 기성 사서가 같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발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의학도서관 협회회의 활동으로 가능할 것이고 의학 도서관 협회에서도 미국과 같이 계속 교육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협회회의 교육 분과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 개설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1년 내내 노력하는 정성을 바쳐 형식에 치우친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의 평생교육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셋째, 의학사서 자격 인증제의 채택

일반 사서에 비하여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서관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취급하는 정보의 특수성 등을 볼 때에 의학사서는 일반사서보다 그 전문성이 크게 인정된다면 이를 증명하

는 자격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나 보수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뒤따라야 그 직종이 좀더 성숙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한 공헌도도 상승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서관 교육기관에서 의학 도서관 과목이 경쟁적으로 확산이 되고 내실을 기하게 된 유인은 초기의 의학사서 자격인증제였다.

중국과 달리 미국의 양성과정이 철저한 주제전문성을 주지 못하고 계속 교육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계속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의학사서 자신들이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 자격제를 5년 내에 계속 교육을 받고 갱신하도록 변화시켰다.

미국에서는 의학사서 중에서도 임상의학사서(Clinical Medical Librarianship)를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의학사서의 전문성은 강하다.

### 1) 자격 프로그램의 운영처

사서자격증은 국가 자격제이지만 반듯이 국가에서 주는 자격만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사서자격을 협회에서 수여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서 의학도서관에서 직원 채용시 의학사서자격을 요구하게 되면 국가자격과 똑같은 효력을 얻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협회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곳이 많다. 의학도서관에 영향력이 큰 병원협회나 의학협회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면 국가 자격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자격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단독 운영을 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 2) 갱신기간

미국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갱신요건인 계속 교육을 받도록 동기를 주는 제도이나 국내에서는 우선 국내 사서교육기관에서 의학사서직 교육에 관심이 확산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생제를 채택하는 것이 기존 사서에게 갑작스러운 부담감으로 오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3) 교수요원의 확보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세부전공으로 의학정보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의학도서관 과목이 상명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목이 개설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의학도서관 과목은 대부분 의학도서관의 실무사서가 맡고 있다. Groen등<sup>31)</sup>에 의하면 1987년에 미국의 47개 대학과 캐나다의 4개 대학에 의학 사서직에 관한 과목을 개

31) Groen and Xiong, *op. cit.*

설하고 있었으나 의학도서관 전문교수직은 10명밖에 없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의학사서가 그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경력을 쌓은 후 전임교수로 발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장사서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이론과 실재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 의학사서들이 계속교육을 위해서 뿐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서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 V. 결 론

북미, 중국, 일본, 한국의 의학사서직 교육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 가능한 의학사서 교육제도를 고안하여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학사서의 양성, 의학사서의 계속 교육 및 의학 사서자격제도를 포함하였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교육기관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특히 의학도서관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의학사서 자격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 의학 도서관 교육이 전국 문헌정보학과에 확산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현장의 의학 사서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의학정보환경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규적이고 효율적인 계속 교육에 힘써야 하고 일선 의학도서관을 고무하여 사서들이 계속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의 의학사서 양성 교육에 실무 사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격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